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는 왼 줄도 모르겠도다.
그릇된
장한(張翰) 강동(江東)애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중국 진나라 때 사람. 왕이 대사마를 삼았는데 가을 바람이 불자 고향이 그리워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했다고 함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활(天淸海濶)ᄒᆞ다.
작은 배
어느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바꿀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
제일강산(第一江山)애, 부평(浮萍) 같은 어부생애(漁父生涯)를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에 부쳐 다니겠는가.
작은 배
이런 일 보건대, 배 삼긴 제도(制度)야
만든
지묘(至妙)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
널빤지로 만든 배 비스듬히
임풍영월(臨風咏月)허되 흥(興)이 전혀 없는 것인가.
바람과 달을 보며 시를 짓고 놂
석일(昔日) 선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옛날 술잔과 쟁반. 술상 마구 흩어져 어지러움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장창(大劍長鎗)뿐이로다.
오늘날
한 가지 배이건마는 가진 바가 다르니,
똑같은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 해 석 >
황제가 처음으로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그릇된 줄도 모르겠도다.
장한이 강동으로 돌아가 가을 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편주를 타지 않으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해도
흥이 저절로 나겠으며, 삼공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경치가 좋은 곳에서 부평초 같은 어부의 생활을
자그마한 배가 아니면 어디에 부쳐 다니겠는가?
이런 일 보건대는 배가 생긴 제도야
지극히 묘한 듯 하다마는 어찌된 우리는
나는 듯이 빠른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풍월을 읊되 흥취가 전혀 없는고.
옛날 배 안에는 술상이 어지럽더니
금일 배 안에는 큰칼과 긴 창뿐이로다.

배는 한가지인데 지니 바가 다르니 그
사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갈 래 : 전쟁 가사
형 식 : 3·4(4·4)조, 4음보의 연속체
구 성 :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주 제 : 전쟁을 혐오하고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기원함
특 징 : ① 생경한 한문구 사용
② 관용구의 남용
③ 왜적에 대한 경계심 표출
④ 사대주의 사상이 드러남

해 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운이 감도는 부산진에 내려온 작자가, 왜적에 대한 비분 강개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전쟁 가사로서, <태평사(太平詞)>와 더불어 중요한 전쟁 문학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문화 민족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힌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연군(戀君)의 정(情), 그리고 태평 성대에 대한 간절한 희구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가사가 개인의 서정이나 사상의 표출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민족적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문학 양식임을 보여 주는 한 예가 된다 하겠다.